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의 로컬 × 임팩트 투자 활성화 : 세상을 바꾸는 투자’ 사회적금융 토크콘서트 개최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 진 경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4월 28일, ‘소셜캠퍼스 온 충남’에서 사회적금융 토크콘서트‘충남의 로컬 × 임팩트 투자 활성화 : 세상을 바꾸는 투자’를 개최하였다.
임팩트 투자란 투자 행위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행사는 기초 강연과 사례 발표, 토크콘서트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행사 시작에 앞서 강윤정 센터장(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은 인사말을 통해 주요 임팩트투자기관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 등 로컬지역으로의 투자 유치가 어렵다고 말하며, 이는 로컬 지역의 도전 과제임을 호소했다.
이어 충청남도청 청년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박성철 과장은 축사를 통해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금융정책의 방향과 함께 임팩트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번 행사의 의미를 축하하였다.

인사말(강윤정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축사(박성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장)

기초 강연으로 MYSC의 김세은 선임컨설턴트는 ‘로컬 임팩트 투자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로컬 임팩트 투자의 성공적 경험을 나누면서, 잠재력과 확장성을 가진 로컬자원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 전략 지역 내 파트너십을 거점으로 하는 ‘직할 전략’과 현지 파트너기관과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앵커 전략’ 그리고 지역 내 존재하는 예비 혁신가를 발굴하는 ‘작은 연못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MYSC 김세은 선임컨설턴트)

이어서 김민수 이사(임팩트 스퀘어)는 로컬이 겪고 있는 정주인구 감소,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들과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는 로컬 임팩트 투자사례를 발표했다.
김이사는 ‘바오스앤밥스’, ‘더몽’,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비네스트’, ‘모람플렛폼’, ‘넷스파’ 등의 사례를 통해 로컬 산업 종사자에게 경제 활동의 기회를 열어 주고, 로컬에 소재하는 견실한 소셜벤처들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로컬임팩트 투자는 로컬 고유의 자원에서 경쟁력과 잠재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로컬소재 민간기업의 ESG 대응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한다.

사례발표 1(임팩트 스퀘어 김민수 이사)

박정환 팀장(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임팩트 투자의 개념과 포지션, 임팩트투자의 펀드 현황과 동향, 임팩트 투자의 부상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사회적 금융을 주목적으로 활동하는 투자형·대출형 중개 기관과 P2P 플랫폼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금융 P2P 대출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로는 '비플러스 사회적금융핀테크지원'을 꼽았다.

로컬 임팩트 자금조달 사례로는 '건맥1897 협동조합 마을펍·마을호텔 지역 자산화'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헬스케어센터 지역자산화'를 예로 들었다. 박팀장의 자료에 따르면 임팩트 투자대상 요건은 의도성, 측정 가능성, 재무 수익성, 확장 가능성 3가지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할 때 일반 스타트업 기업투자와는 차별화된 단계로 임팩트 투자에 대한 검토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그가 제시한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1년 수도권지역의 지자체 기금예산은 325억 원으로 전체 지자체 기금의 88.3%를 차지하는 반면, 충남은 5.5억으로 1.5%에 불과하여 사회적경제기금 예산의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발표 2(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박정환 팀장)

임팩트 투자 사례로는 '강원피크닉투자조합',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를 예로 들었고, 시 이렇게 로컬 임팩트 투자가 어려운 이유로는 임팩트 투자사가 서울에 집중되어있고, 지역 기업 중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 사례가 부족하며, 20~35억 원 펀드 규모의 운용사를 찾기 어려우며, 주목적 투자가 '지역기업'인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에는 경남도의회의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로 '22년 5월 중소기업투자기금 220억 원을 조성했다는 내용도 있어, 로컬 임팩트투자에 대한 변화의 조짐 또한 볼 수 있다.

2부에는 청그라미 이영석 대표의 진행으로 임팩트 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패널 토크가 이어졌다.

2부 패널 토크에는 MYSC 김세은 선임컨설턴트, 임팩트스퀘어의 김민수 이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박정환 팀장, 해피캔버스 김용빈 대표, 한국특산물유통의 박경호 대표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제2부 패널토크

이번에 개최된 사회적금융 토크콘서트를 통해 충남지역의 임팩트 투자 정책과 환경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었고, 이런 토론의 자리가 로컬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에 참여자 모두가 공감했다.

행사를 준비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각종 금융창출노력을 통해 충남사회적경제금융의 활성화를 꾀하고, 행정과 당사자조직,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